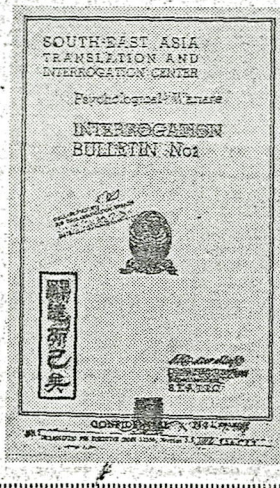


정부서挺身隊 강제동원 체立証 美 공식文書 공개

모집·선박·제공·性病검사 등 日軍이 全面주도 사실 밝혀

美軍, 44년 日軍진술등 토대 작성

日本정부가 제2차대전 중 日軍종교인양보(여자挺身隊)로 韓人여성들을 강제동원하는데 日軍이 허가와 선박제공통행증발급등에서 우연전반에 이르기까지



◇日帝시대 정신대에 日本정부가 공식개입했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美軍심리전팀의 44년 8·9월 보고서가 수록된 제2차대전 심리전 심문公報 제2권.

美軍심리전팀이 정신대에 강제동원했던 韓人여성위안부들과 日本人위안소운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제2차대전 東南亞지역 심리전 심문公報 제2권에 수록된 이 보고서는 44년 당시 버마전선에 투입됐던 20명의 韓人여성정신대와 2명의 日本人우연전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충원일시와 우연전반, 그리고 이 과정을 공식주도한 日軍의 개입을 상세히 기록, 日本정부가 공식관련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신대 관련 美軍문서는 지난달 29일 美스탠퍼드대

에서 발견된 오키나와 주둔 美軍의 부부연립회의에 정신대운영 전반을 다룬 美정부 공식문서로서는 최초로 공개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내에서 의정대 모집 과정에는 日軍의 허가가 필요했고, 日軍은 정신대의 통행증의 틀 위해 선박을 제공했던 사실 등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美정부도 버마 등 동남아 주둔 일본군 사령부 앞으로 정신대의 교통신랑

의료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통행증(LETTER)을 발급했고, 이를 버마도착 후 특정 일본군대에 배속(ATTACH)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버마전선에 투입된 정신대원수는 42년 1월에 처음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정신대들이 한층 투숙했던 위안소의 운영은 日軍이 부대별 계급별로 자체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

됐고, 정신대원들을 위해 日軍 병이 배치됐으며, 매 주 수요일마다 일요일의 관습이 위안부들의 심정을 진정시키는 등 日軍의 엄격한 통제 하에 운영됐음도 공식화인 됐다.

정부는 駐美대사관이 발견한 이같은 美軍공식문서가 지금까지의 日本정부의 공식해명을 전면으로 뒤집게 된다는 사실을 충시, 20일 이후 美國 日本 내셔널 드英國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등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던 9개국 주